

제13호 2019.12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 정책 현황과 과제

시민정책연구부 행정학 박사 이정철 부연구위원
jcllee@gyri.re.kr

시민정책연구부 행정학 석사 황휘옥 위촉연구원
retinder0b@gyri.re.kr

Contents

- I. 논의의 배경
- II. 고양시의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III. 공공장소 내 여성 안전 정책 관련 해외 사례
- IV. 공공장소 내 여성 안전 정책 관련 국내 사례
- V. 결론 및 시사점



2008년 이후 우리 사회는 여성안심귀가길, 여성안심주차장, 안심택배서비스, CCTV설치,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물 설계 및 환경 디자인, 여성안심도시·여성안심마을 등 다양한 여성 안전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여성에 대한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과 관련하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다양한 인식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 많은 비중의 응답자들이 범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사회안전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등은 여성에 대한 공공장소 안전 관리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최근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비롯한 여성 안전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최근 발표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 응답자의 80%가 불법촬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느꼈으며, 가장 불안감을 호소한 장소는 공중화장실(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공중화장실 내의 안심벨 설치, CCTV 확대 설치, 안심앱 보급 등의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실제로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체감할 정도로 지역사회 내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적인 관점의 안전정책 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장소 내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지에서는 고양시의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으로서 전개되고 있는 정책 사례 및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 비교 등을 통하여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는 관리과제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지에서는 공공장소의 여성 안전 지원과 관련된 정책 사례로서, 앞선 논의에서 여성들이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장소로 보고되는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여성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 여성 안심화장실 지원 관련 추진 사례 및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 필요성에 입각하여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골목길, 우범지역 등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장소 주변 환경에 대한 환경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주요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사업 사례들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여성 안심 공중화장실 사업 관련 정책들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관점에 기반한 생활·주거 환경정비 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본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 안심화장실 운영은 IoT 기반 안심벨 등 최신 ICT를 활용한 안전 확보 노력 또한 중요하지만 다중이용시설 등 안심화장실 자체에 대한 범위 확대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로, 사전 예방 및 안전역량 강화 측면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 관련 교육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직장인 남성이나 청소년 등과 비교하여 3~40대 여성이나 주부 등의 여성들은 안전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역할을 고려하여 계층별로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내실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한 민관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 및 집행 필요성이 강조된다.

I. 논의의 배경

GYRI

□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 정책의 필요성

○ 여성의 공공 안전 문제와 정책 강화 필요성

-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사회란,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이 심야나 새벽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도 제약없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공간과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회 상태를 의미함(장미혜, 2014¹⁾).
-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의 성(性)인지 통계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 거주 여성의 2명 중 1명은 우리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성폭력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89.3%인 것으로 나타남²⁾. 또한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최근 발표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불법촬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성 응답자는 5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80%가 불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서울시, 2019³⁾).
- 자료에 의하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장소는 남녀 간의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공중화장실(52%)을 가장 불안한 장소라고 응답함.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불법촬영 피해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83.4%였으며 역·대합실(33.9%) 등 대부분의 피해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
-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특히 2016년 강남역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장소 내 여성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CCTV와 안심벨 설치, 안심앱 보급 등의 대책을 제공하기 시작함.
-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사후적인

1) 장미혜. “여성안전정책의 새로운 쟁점과 과제”,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자료집」,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4년 7월), pp.3-9.

2) “서울여성 절반 “우리사회 불안해요”...범죄 가장 두려워”, 중앙일보(2019.01.20.), <https://news.joins.com/article/23304947>, 접속일 2019.12.21.

3) 서울시(2019).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보고서」. 서울시.

관점의 안전정책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여성의 안전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장미혜, 20174).

- 이러한 측면에서 고양시의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에 대한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국내외 사례 비교 등을 통하여 정책 개선 방안 등 향후 필요한 관리과제들에 대하여 논의함.

II. 고양시의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GYRI

□ 민선7기 공약 추진을 통한 여성 안전 확보 노력

○ 여성 안전 관련 주요 공약사항 및 실천 현황

- 고양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안전 정책과 관련하여 ‘고양시민께 드리는 6가지 행복한 약속(민선 7기 6대 단기과제)’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을 제시하였으며, 민선7기 공약을 통해 ‘평화경 제특별시’, ‘사람 중심도시’, ‘시민행복도시’, ‘지속가능발전도시’ 등 4대 시정목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혁신 전략으로서 시민안심·행복도시 구현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시민안전 제고 전략에는 안전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시민 안전 마스터 제도 도입, 방법 CCTV 설치 확대, 여성안심 화장실 사업 등이 포함됨.
- 여성안심 화장실 사업은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여성 안전 지원 정책으로, 현재 안심비상벨 시스템이 운영 중인 공공장소 공중화장실(105개소)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불법 촬영카메라 및 활성 기기 탐지기, 적외선 탐지기(2대 1세트) 등을 설치 하여 2개월 주기의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여성 안전 확보 노력

○ 고양시의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

-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 하며(이정아, 2018), 기초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 간 협약을 통한 정책 사업으로 시행됨. 여성친 화도시 지정 및 조성 사업은 2009년 익산시, 여주시 2곳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8 년 12월 기준 87개 지자체에서 추진·운영되고 있음.
- 고양시는 지난 2014년 10월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 정책

4) 장미혜(2017).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영역 등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 참여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 왔으며 2020년부터 5년 동안 진행할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재지정되어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그림 1]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출처: 고양시 홈페이지⁵⁾

- 고양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목표로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 가운데 여성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통행 특성을 반영한 이동 여건 조성, 도시기반시설·공공이용시설·주거단지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지역사회 위험에 대한 여성의 대처능력 향상 등을 추구함.
- 구체적인 예로 고양시는 여성친화시민참여단 및 고양여성네트워크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 일산서구 신청사 내 여성커뮤니티센터 조성, ▲직장맘n대디 행복공동체사업, ▲대중교통 임신부 안전벨트 배려석 운영, ▲여성안심무인택배함 및 여성안심귀가동행서비스, ▲여성창업플랫폼 구축, ▲여성친화 플래너 아카데미, ▲고양여성영화제 등 지역특화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지속 추진해 옴. 이 가운데 여성 안전 확보와 관련된 정책 사업들의 주요 추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이정아, 2018⁶⁾).

○ 여성 안심귀가 동행 홈투홈 서비스

5) 고양시 홈페이지 - 여성친화도시조성(http://www.goyang.go.kr/www/www03/www03_8/www03_8_6/www03_8_6_tab2.jsp) 접속일 2019.12.23.

6) 이정아(2018). 「고양시 여성친화도시정책 발전방안」, 고양시연구용역보고서.

-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는 여성의 밤길 안전을 확보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안심귀가 서비스는 범죄 취약 시간대 여성의 집까지 동행하여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며 밤 9시부터 새벽1시까지 운영됨.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 탄현동, 송산동 등 5개동을 대상 지역으로 운영되며 해당 동 주민자율방범대·어머니자율방범대 등의 참여·지원을 통해 이루어짐.

○ 여성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

- 고양시는 기타 경기도 내 다른도시들과 비교하여 여성 1인 가구수의 비율이 높아, 이들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여성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는 고양시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에 의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마을에서 시작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됨.
- 여성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는 거주지 인근 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택배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로 주거지 노출 또는 혼자 있어 문을 열어줄 때 불안감을 느끼거나, 바쁜 직장생활로 택배 수령이 어려운 여성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 협력 사업임. 현재 덕양구 3곳(덕양구청 민원실, 원흥역, 삼송역), 일산동구 4곳(고양종합터미널, 벨라시타, 마두역, 정발산역), 일산서구 3곳(주엽역, 일산역, 탄현역) 등 10곳에서 지원되고 있음.

III. 공공장소 내 여성 안전 정책 관련 해외 사례

GYRI

□ 여성안심화장실 운영 사례

- 일본, 미국,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여성안전화장실을 운영함.
- 조사된 국가의 여성안심화장실 사례는 주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임.
- 사례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안심화장실의 경우,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와 더불어 화장실 내부의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의 2가지 방안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음.

□ 일본의 여성안심화장실 운영사례

- 일본의 공용화장실은 장애인, 아동, 노약자 등을 배려한 배리어프리에서 더 나아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시킨 다기능화장실이 특징임.
- 기존의 일본 공용화장실은 일본 여성들로부터 무서운(怖い), 더러운(汚い), 어두운(暗い)의 3K로 여겨지는 공간이었음.

-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최근에는 공중화장실의 다기능화와 더불어 화장실의 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불안함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코마츠(小松) 시 ‘편리한 화장실 조성’ 사업⁷⁾

- ‘편리한 화장실 조성’ 사업은 코마츠 시에서 추진한 도시 환경 개선사업인 ‘편리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임.
- 본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과, 고령인구가 많은 코마츠 시의 실정에 맞게 화장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며, 위생·미화·방범·비상시 연락 등의 기능을 충족하는 공용화장실을 갖추는 것을 사업의 주된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중 방범 및 비상 시 연락을 위해서는 화장실 내 사각지대의 배제, 긴급 호출장치의 설치, 안전 지역에 공중화장실 설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코마츠 시 시민공창부의 주관으로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져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됨.

○ 도시마 구(豊島区) ‘아트 화장실(アートトイレ) 조성’ 사업⁸⁾

- ‘아트 화장실 조성’ 사업은 도쿄시 도시마 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의 여성인구 감소세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에서 추진됨.
- 일본 여성들에게 흔히 무서운(怖い), 더러운(汚い), 어두운(暗い)의 3K로 여겨지는 공용 화장실의 불안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그림 2] 도시마 구 이케부쿠로 공원에 조성된 아트화장실



출처: 도시마 구 홈페이지⁹⁾

7) 코마츠시(2016), ‘やさしいトイレのあり方’, 小松市役所市民共創部(2019), ‘民間施設のトイレを使いやすく’ 내용을 정리함.

8) 세계일보, ‘어린이집 늘리고 우범지대 리모델링... 여성들이 돌아왔다’, 2019.11.02., 도시마 구 보도발표, ‘アートトイレ第1号「絵の中に入って遊べる壁画」完成!’, 2018.01.30. 내용을 정리함.

- 본 사업은 2018년 도시마 구에 있는 이케부쿠로 공원(池袋公園)을 시작으로 공원화장실을 비롯한 공용화장실 133개소 중 85곳을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현대식으로 개·보수하고, 시설이 개선된 화장실 중 24곳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젊은 예술인이 공동으로 밝은 색 그림을 그려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였음.
- 이 사업 이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도시마 구의 2045년 여성 주민 수는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사업이전 추산된 수치에 비해 63% 증가된 수치임.

□ 미국의 여성안심화장실 운영사례¹⁰⁾

○ 미국 포틀랜드 루

- 포틀랜드 루는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에 설치된 공용화장실임.
-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의 기존 공중화장실은 외벽의 낙서, 마약거래, 노숙자들의 거주 등으로 인해 여성 및 아동이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
- 포틀랜드 루는 포틀랜드 시의원인 Randy Leonardo에 의해 디자인되었는데, 이용자의 발에서 무릎까지, 그리고 머리에서 천장에 해당하는 일정부분을 개방하여 내부의 불법 활동 상황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을 인적이 많은 곳에 설치하여 여러 사람의 발이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조치하여 범죄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음.
- 포틀랜드 루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화장실 외벽의 경우 낙서가 쉽게 지워지는 소재를 활용해서 제작하여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잠정적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함.

[그림 3] 포틀랜드 루 운영 예시



출처: 포틀랜드 루 홈페이지¹¹⁾



9) 豊島区(2018) ‘아트トイレ第1号「絵の中に入って遊べる壁画」完成!’

(<https://www.city.toshima.lg.jp/013/kuse/koho/hodo/h3001/1802011426.html>) 접속일 2019.12.29.

10) 서울연구원(2012), ‘세계도시동향 제295호’, 강철구 외(2017), ‘경기도 공중화장실 안전관리방안연구’ 내용을 정리함

□ 호주의 여성안심화장실 운영사례¹²⁾

○ 호주 엑슬루(Exeloo)

- 엑슬루는 호주전역에 475개소가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다기능화장실을 지향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임.
- 공중화장실의 여성안심을 위해서 화장실 내에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문이 열리기 전 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화장실 내부의 범죄발생을 억제하며, 가시성이 높은 곳에 설치되어 유사 시 주변으로부터 도움받기 쉬운 형태로 설치됨.
- 기본적으로 화장실 이용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어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음성 메시지로 안내되며,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서 배회하는 것을 막고, 약물 남용 또는 범죄 등 기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함

[그림 4] 호주 엑슬루 외부(좌)와 내부(우)경관



출처: 엑슬루 홈페이지¹³⁾

- 외벽은 파손을 억제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표면은 다공성이 아니어서 외벽의 낙서 제거가 용이하여 경관의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됨.
- 변기 주변에 안전 바를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타일을 설치하여 범죄 외에도 화장실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성 외에도 화장실 외관에 밝은 이미지나 그림을 그려서 잠재적인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11) Portlandloo(<https://portlandloo.com/>), 접속일: 2019.12.21.

12) Exeloo(<https://exeloo.com/>)의 내용을 정리함.

13) Exeloo(<https://exeloo.com/>), 접속일: 2019.12.22.

IV. 공공장소 내 여성 안전 정책 관련 국내 사례

GYRI

□ 여성안심화장실 운영 사례

□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¹⁴⁾

○ 2018 ‘경기도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계획

- 경기도는 남녀공용 및 공원 등 범죄 취약지대 소재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안심비상벨 214개를 신규 설치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중화장실 내 강력 범죄로 인한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음.
- 본 계획안에는 신규 설치 예정인 214개소 외에도 2017년 이전에 설치된 484개소에 대한 안심비상벨 유지관리도 포함하고 있음.
- 설치 장소는 관할 경찰서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되며, 주로 경찰청 Red 공원지정 화장실 등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용자의 불안감이 큰 공중화장실을 우선하여 선정함.
- 추후 안심비상벨과 연동하여 비상벨이 울릴 경우 경찰서 상황실·CCTV 통합관제센터 등에 연결해 정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킬 예정임.

[그림 5] 경기도 화장실안심 비상벨 경보대응 시스템 체계도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¹⁵⁾

□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¹⁶⁾

14) 경기도청, ‘경기도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이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2018.09.17. 내용을 정리함.

15)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archives/3960032>), 접속일 2019.12.21.

16) 내 손안에 서울, ‘몰카꼼짝마 공공화장실 2만곳 매일 점검합니다’, 2018.09.12., 서울특별시(2019), ‘서울형 뉴딜일자리 여성안심보안관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내용을 정리함.

○ ‘서울형 뉴딜일자리 여성안심보안관’ 사업

- 서울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장비 설치여부 점검 등 여성 안심 환경 조성사업에 참여할 여성안심보안관 31명을 선발·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은 18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시민으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는 모두가 신청가능하며, 서울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각 자치구에서 선발하는 안심보안관에 신청이 가능함.
- 안심 보안관의 주된 역할은 관내 공공, 민간건물 내 화장실, 탈의실 등 몰래카메라 설치유무를 점검하고, 여성대상 폭력예방 캠페인을 수행함.
- 주된 점검 대상은 공공민간 개방 화장실 중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시설이 노후했거나 민원발생이 많은 화장실 약 1,000개소로,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함.
- 기존에는 민간시설·기관단체가 메일로 점검신청을 하면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2018년부터는 자체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에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를 비롯한 점검 장비를 무료로 임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그림 6]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¹⁷⁾

□ 수원시, 여성안심화장실 만들기¹⁸⁾

○ ‘불법촬영 걱정 없는 여성안심 화장실’ 추진계획

- 수원시는 최근 불법 촬영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여성안심 화장실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부터 여성화장실을 중점적

17) 서울시 홈페이지 - 내손안의 서울(<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80216>), 접속일 2019.12.21.

18) 수원시 보도자료,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뿌리 뽑는다’, 2019.06.21., e수원뉴스, ‘여성안심화장실 만든다 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 2018.12.04., 내용을 정리함.

으로 점검을 시작함.

- 수원시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단은 공중화장실의 관리부서 담당자, 시설관리자 등으로 구성되었고, 월 1회 담당 구역 화장실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함.
- 본 추진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점검대상은, 수원시 소재 공중화장실 150여 개소, 공공청사·복지관 내 화장실 56개소, 건물소유주가 동의한 민간 개방화장실 60개소 등 총 270여 개소임.
- 점검반은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기기의 전파를 탐지하고, 카메라를 찾으며,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여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함.
- 2019년 5월부터는 관내기업, 음식점, 숙박업소,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중 수원시청 여성정책과 혹은 가정복지과에 대여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탐지장비 1대를 최대 3일까지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창원시, ‘안심거울’ 설치¹⁹⁾

○ ‘24시 여성안전망 구축’ 사업

- 창원시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예방차원에서 2019년 7월 25일부터 범취약 지역인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공공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심거울 설치사업을 진행함.

[그림 7] 창원시 안심거울 설치 예시



출처: 창원시 보도자료²⁰⁾

- 본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원룸 및 공중화장실 출입구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됨.

19) 창원시 보도자료, ‘창원시, 안심거울로 범죄발생 OUT’, 2019.07.25., 의창구 뉴스, ‘서정두 의창구청장, 주민안전 현장점검 실시’, 2019.07.17. 내용을 정리함

20) “창원시, 안심거울로 범죄발생 OUT”, 창원시 보도자료(2019.07.25.)

- 안심거울은 가로43cm, 세로 58cm의 아크릴이며, 여성에게는 시설에 진입 전 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얼굴이 노출되어 범죄의도를 사전에 포기하는 심리적인 요인을 줌으로써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기법을 도입한 사업이라는 의의를 지님.
- 그 밖에도 창원시는 여성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편의점으로 대피하여 경찰동행 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 150개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성남시,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²¹⁾

○ ‘성남시 여성 안심화장실’ 사업

- 성남시는 성남시 가족여성과 주관으로 ‘여성안심화장실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함.

[그림 8] 성남시 여성 안심화장실 사례



출처: 성남시 보도자료²²⁾

- 본 사업은 문지마식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불안을 없애고, 사전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에서 추진됨.
- 2016년 2월에는 성남 탄천 좌우 안에 있는 23곳 모든 공중화장실에 응급상황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방범비상벨과 경고등을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보안이 취약한 수정구의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층을 분리하고, 여성화장실에는 19개 칸에 안심벨을 그리고 여성화장실 입구에는 경광등을 설치하여 여성안심화장실을 조성함. 또한 사물인터넷(IoT) 응급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명, 폭행·구타 소리, 유리 파손음 등을 이상 음원으로 자동 감지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 처리하도록 운영함.

21) 비전성남, ‘성남시 여성 안심 화장실 사업 퍼’, 2016.11.04., 내용을 정리함

22) 비전성남, 전게서.

□ 여성안전 환경 조성 및 지원 사례

-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적인 정책 수단 또한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됨.
-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환경 설계로 범죄를 예방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기법을 통한 환경정비가 최근 지자체에서 강조됨.
- CPTED의 세 가지 원리는 ①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제거하고, ② 보행로·조경 등을 최대한 노출되도록 설계하여 낯선 사람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며, ③ 주민에게 소속감 제공을 통해 범죄관심도를 제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력을 제고하는 것임.
- 이러한 CPTED 기법을 통해 여성 등의 공공장소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 중구 ‘여성안심마을 만들기’ 사업²³⁾

- 서울시 중구청은 중부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CPTED 사업을 추진, 장충동과 필동 일대를 ‘여성안심마을’로 조성하여 동국대 등 대학가 부근 원룸촌의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CPTED 사업을 추진함.
- 여성안심마을로 선정된 서울 중구 서애로 3·5길, 동호로 25길·25가길 일대는 동국대 후문에 위치한 다세대·원룸촌으로 여성 1인 가구가 밀집된 지역의 특성을 지님. 서울시 중구에서 수행한 CPTED 기반 여성안심마을 조성 노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보급함. 이러한 예로 미러시트 37개소, 비상벨 8개, 반사경 8개, 지킴이집 11개 등을 설치함.

[그림 9] 여성안심 보호장치 설치의 예



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홈페이지²⁴⁾

23) “셉테드(CPTED), 범죄예방설계로 여성안심마을 만들기”, 스마트서울경찰(2017.08.07.)을 정리함.

- 둘째, 안전한 골목길을 위한 장치를 설치함. 이러한 예로 여성안심마을 골목 일대에 방법용 CCTV 7대, 주차장 반사띠, 틈새 가림막 설치, 계단 도색 등의 작업이 이루어짐.

[그림 10]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보호장치 설치 사례



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홈페이지

- 셋째, 웨이파인딩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수단들을 설치함. ‘웨이파인딩(way finding)’이란 건축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방향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주어진 환경 조건 내에서 길을 선택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내는 말로서 시각적 환기 효과를 통해 지역 내의 우범지대화를 예방할 수 있음. 중구청은 이를 위해 고도 조명 10개, 막다른 길 안내 및 다님길 표지판 등을 설치함.

[그림 11] 웨이파인딩 기법 도입의 예



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홈페이지

24) 스마트서울경찰(<https://smartsmpa.tistory.com/3820>), 접속일 2019.12.22.

- 넷째,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함. 구체적으로 쓰레기 배출안내·노상 무단투기 방지문구, 거주민들의 차량을 활용한 블랙박스 순찰대와 동국대생으로 구성된 자율순찰대인 동국대 캠퍼스폴리스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데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운영함.

[그림 12] 공동체 치안활동 전개의 예시



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홈페이지

- 이러한 CPTED기법을 활용한 일련의 치안활동을 수행한 결과 안심마을 일대에서는 2017년 한 해동안 성범죄 발생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둬.
- 충남 예산군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사업²⁵⁾
 - 예산군은 예산경찰서와 협의하여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지역을 선정, 방범용 CCTV 22대를 설치하였으며 어두운 벽면이나 바닥 등에 LED 빛을 투사해 이미지를 보여주는 CPTED기법을 활용한 영상장치인 로고젝터 6대를 설치·완료함.
 - 이를 통해 여성범죄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CCTV와 함께 ‘여성·안심 귀갓길’이라는 문구를 활용,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 등에게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범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평가됨.
- 경기도 시흥시 ‘안전한 노랑별길’ 조성 사업
 - 시흥시의 경우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고,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은 정왕동 군서초등학교 주변 지역에서 통학로·보행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정왕동 마을주민

25) 이정아(2018), 전계서, pp.31-32.

대표, 시의원, 시흥경찰서, 시흥교육청 등 주요 주체들을 여성친화도시 지역 거버넌스로 구성하여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함.

- 이에 “노란별길” 시범거리 조성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노란별 나눔터 운영을 실시하여 공원과 연계된 도로를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민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안전 거버넌스협의, 지역 모니터링, 부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시범거리 내 보안등 조도 상향 및 추가,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선 삭제 및 인근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등의 사업을 시행함.

○ 인천시 부평구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 사업

- 부평구는 여성이 거주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고, 이동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마을 어귀까지의 거리를 약 300-400m, 500보로 측정하여 안전 구역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함. 주거지역내 골목길 500m와 골목길 주변 건물 및 시설물 등에 범죄 예방환경 조성기법을 적용하여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이 친근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단’과 인근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자원봉사센터 활동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디자인 참여단’이 함께 마을 개선사업 도입요소 등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결정하고 사업 추진함. 2013년 청천 1동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4개동에서 사업이 진행됨.

○ 강원도 강릉시 ‘마을안전지도’ 사업

- 골목 위험 사각지대 및 안전 이동이 어려운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밀착형 마을 안전 지도 제작 및 마을주민과 공유함. 본 사업은 아동뿐만 아니라 여성과 이동 약자도 활용 가능하도록 범죄 위험요소, 안전 요소, 이동 개선사항을 함께 조사한 마을생활 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함.
- 마을안전지도 제작 지역의 위험요소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여성 친화거리 정원 조성 사업으로 확장했는데 행정, 시민참여단, 여성주민들은 마을안전지도를 통해 확인된 안전취약공간을 여성친화거리정원으로 조성 사업으로 발전시킴.

V. 결론 및 시사점

GYRI

- 최근 재난안전 약자로서 여성에 대한 안전 강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한 비상벨 설치 등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여성 안전에 대한 체감도와 관련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노력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첫째, 여성안심화장실 운영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고려할 수 있음.

- 먼저, 안심화장실의 보급 및 범위 확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019년 기준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1,957개소임. 고양시는 2017년부터 안심화장실 도입을 추진함(안심화장실 도입 사업 사업비 290백만원, 자원순환과 주관). 이러한 측면에서 비상벨 설치 안심화장실 개소의 확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안심벨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소는 1,957개소 중 105개소에 불과함, 이는 전체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안심화장실 개소의 확대를 고려하고, 공원 등의 공공화장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일상에서 많이 이용하는 공간 중 하나인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설치 확대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또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구 차원의 점검반 구성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음. 서울시 사례에서 처럼 고양시에서도 공중화장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범죄발생 가능성을 저감시킬 필요 있음. 현재는 구의 환경녹지과, 관할지역 경찰관 일부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연2회 수준의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동에 소속된 시민안전지킴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주기적, 상시적 점검 필요성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 그리고 CPTED 관점 등을 통한 공중화장실의 경관에까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해외사례, 창원시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경관의 개선이 필요함. 현행 고양시의 안심화장실 도입안은 안심비상벨, 불법촬영 단속시스템과 같이 범죄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안만을 다루고 있음. 따라서 예방의 차원에서 고양시 화장실의 미관 개선을 통한 범죄의 사전적인 예방과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음.
- 둘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 관련 교육 필요성이 제기됨.
-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 등의 기관에 속해있지 않은 30-40대 여성들은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대부분의 안전교육은 학교나 회사 등 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업주부인 30-40대 여성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낮은 수준으로 진단할 수 있음. 또한 여성 집단은 남성에 비해 체험형, 실습형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 또한 더 적은 것으로 진단됨.
 -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가족과 또는 시민안전과 등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를 지정하고, 공공장소에 대한 관리를 하는 다른 부서들이 안전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실습형 교육방식을 추가하는 방안 등의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특히 연령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역할을 고려하여 주부 대상, 노년기 여성 대상 등 계층별로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체험을 유도하는 교육방식 개발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민·관 거버넌스 관점에서 공공장소에 대한 환경정비(CPTED 사업 등)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안전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이나 부서의 단일한 노력만으로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치안활동 및 범죄대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조직과 지역주민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 등을 유도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치안환경 조성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거버넌스적 접근을 바탕으로 안전취약지역의 우선적인 안전관리 대책 수립, CCTV를 통한 관제 활동 등 보안시설 설치 강화, 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고양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13호

발행일 2019.12.31.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TEL 031.8073.8341
FAX 031.8073.0710
HOME PAGE www.gyri.re.kr
ADDRESS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고양시정연구원(GYRI)**

-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인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